茶聖의 가풍 엄격하게 잇는다

초의선사 다맥 공식 전수 의의
동진스님등 30명 6대 인정

◇한국선다회가 개최한 '초의다맥 전수식'에서 백운 스님이 전수증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한국 차문화의 중흥조인 다성(茶聖) 초의(1786~1866)선사의 기일인 8월 29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경남 하동 쌍계사에 차인들이 모여들었다.

최근 발족한 '초의다맥 한국선다회(회장 안광석, 이하 선다회)' 회원들이 초의 선사의 기재를 맞아 우리나라 전통 차문화와 차맥을 이어가기 위한 '초의선사 추모 다례재'와 '초의다맥 전수식'을 열기 위해 모인 것이다. 선다회는 초의 스님의 다맥을 공식적으로 전수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이 고문을, 백운 스님(초의다맥 5대 전수자, 부산 미륵암 주지)이 자문위원을, 전각가 안광석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오전 10시. 가사 장삼을 수한 스님들과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차인들이 대웅전에 모였다. 정성스레 달인 차를 초의선사 영정에 올리며 시작된 다례식에는 조유행 하동 군수를 비롯한 100여 명의 차인이 참석해 초의 스님의 차 정신을 기렸다.

다례재 후에는 다담(茶談)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백운 스님은 "오늘날 우리나라 차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진정한 차문화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지켜나가려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초의선사의 차정신인 '선다일미(禪茶一味)' 사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11시. 쌍계사 대웅전에서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초의다맥 5대 전수자인 백운 스님을 전수사로 '초의다맥 전수식'이 거행됐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쌍계사 주지 우담 스님과 백련차문화원을 이끌고 있는 동진 스님(망월사 주지)을 비롯해 종정다례원 이정애 원장, 고세연 차종가 고세연 원장, 가례원 설옥자 원장 등 원로 차인 30여 명이 6대 다맥 전수자로 인정받았다. 전수사 백운 스님은 "이번 전수식은 초의 스님의 차맥을 공개적인 증명과 전수를 통해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마련됐다"며 "수행 생활 속에 차를 마시며 차인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사의 집행위원장 지환 스님(전 조계종 감찰부장)은 "조만간 선다회를 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5월 21일 '차의 날'을 기념해 차맥 전수식과 차문화 축제를 쌍계사에서 개최할 것이다"고 밝혔다.

쌍계사=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가례원 설옥자 원장이 초의 스님께 올릴 차를 달이고 있다.

'초의다맥'이란

초의스님 '차정신' 계승 일부 "정통성 독점 우려"

사실 '다맥'이란 어휘로 차문화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잊혀져가던 우리 차문화를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킨 초의 스님의 뜻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시대의 흐름 속에 엄연히 존재했다.

이러한 '다맥'은 초의의순 스님에 이어 2대 전수자인 여암선기 스님, 3대 쌍수일한 스님, 4대 응송영희 스님에게 이어져 왔다. 4대 응송 스님은 백운 스님과 금당 최규용(2002년 입적) 씨에게 다맥을 전수했다.

지난 2000년 대흥사에서는 백운 스님이 전수사로, 1차 전수식이 비공개로 열렸다. 이 때 여연 스님(일지암 초의차문화원장)과 도형 스님(전 대흥사 주지), 지환 스님(전 조계종 감찰원장), 법조 스님(대구 지장암) 등이 백운 스님으로부터 다맥을 전수 받았다.

'초의다맥 전수식'은 5대 백운 스님이 초의 스님의 다맥을 공식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선다회가 다맥 전수자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못하고 있고, "'초의다맥'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정통성을 독점하려 한다"는 차계 일부의 주장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해인사 다경원 차 수련법회

해인사 승가대학 다경원은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2003 가을 차문화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법회는 입재식에 이어 여연 스님의 차문화 강의, 향기를 찾는 사람들 박희준 대표의 전통향 강의, 소설가 정동주 씨의 '불교와 한국의 차살림' 강의, 마애불 헌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차와 불교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비 4만원.(055)931-1016

제주 2003 국제차축제 개최

'2003 국제차문화축제'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목 관아지에서 펼쳐진다. 제주도다도협회와 (사)한국다도협회 서귀포지부가 '다도정신을 통한 인류의 평화와 복지향상에 기여'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일본의 우라센케 다회, 중국 천복재단, 대만의 천인다예문화기금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064)733-0061

일시		행사내용	장소
9월 19일	13:00~15:00	들차회	제주컨벤션센터
	15:00~17:00	다례시연	
	18:00~20:00	환영의 밤	
9월 20일	10:00~10:50	개회식	제주컨벤션센터
	11:00~12:00	전통문화시연	
	13:00~15:00	들차회	
	18:00~20:00	교류대회	
9월 21일	13:00~15:00	들차회	제주목 관아
	15:00~18:00	다례시연	
9월 22일	10:00~14:00	세미나	사무국

차맥 지킴이

이정애

(종정다례원 원장)

전통의 맥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집안을 우리는 종가(宗家)라고 부른다. 1975년 향우회(香友會)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30여년을 차문화 보급에 매진하고 있는 종정다례원 역시 '차의 종가'라 불릴 정도로 우리 차문화 전통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종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정애(79) 원장. 종정다례원의 전국 13개 지부에 소속된 회원만도 줄잡아 1천여 명에 이른다.

"1980년대 초반, 서울에서 한창 우리 차문화 찾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때였습니다. 당시 차를 배우던 저에게 효천 스님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 차문화를 보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20명 남짓 활동하던 향우회는 이후 '종정차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부 설립에 나섰다. '종정차회'라는 이름은 얼마 전 100세의 나이로 타계한 금당 최규용 선생이 차의 종가가 되라는 의미로 붙여준 호 '종정(宗貞)'에서 비롯됐다.

"당시만 해도 정식 다도구나 다법은 찾아보기 힘들었지요. 그때부터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찻잔 놓는 법, 차 정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례가 정립된 후에는 일본인 이시구레 모도애 씨와 만나 한·일차문화교류의 물꼬를 텄다. 1985년 이후 매년 한국와 일본을 오가며 한·일친선문화교류회를 개

전국 13개 지부 1천여 회원 한·일 교류등 해외홍보 앞장 '주인정신' 잃지 말 것 강조

최했고, 다례시연과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또한 1991년 미국 하와이주립대학 한국전통 다도시범, 1994년 경주 흥륜사 신라불교 순교자 이차돈성사 추모제 등에 참가해 한국 다도 알리기에 앞장섰다.

종정다례원의 그동안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선류 신라차 다법'을 연구·개발해 낸 것이다. 1992년 12월, 부산여성문화회관에서 처음 선보인 이 다법은 신라 화랑들이 수련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차를 마신데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원장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1년 일본 총편류 다도 교수증을 취득했고, 1994년에는 한국차인연합회 다도대학원을 수료하는 등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탓일까. 이 원장은 문하생들에게 '주인정신'을 잃지 말 것을 항상 강조한다. "차 마시는 순간만 차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예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차인이다"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매년 6월 9일과 1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문하생을 배출하고 있는 종정다례원은 조만간 법인을 설립해 활동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차는 마시면 마실 수록, 배우면 배울 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차인들은 몇 년 정도 차를 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인에게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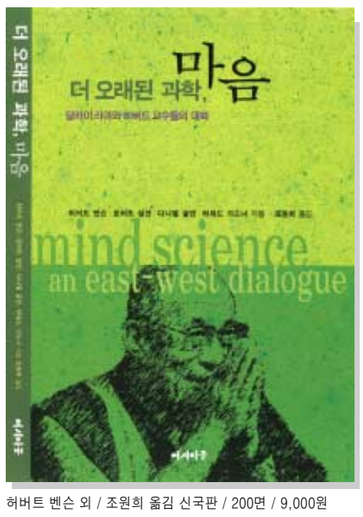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최근호 보도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등이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된다는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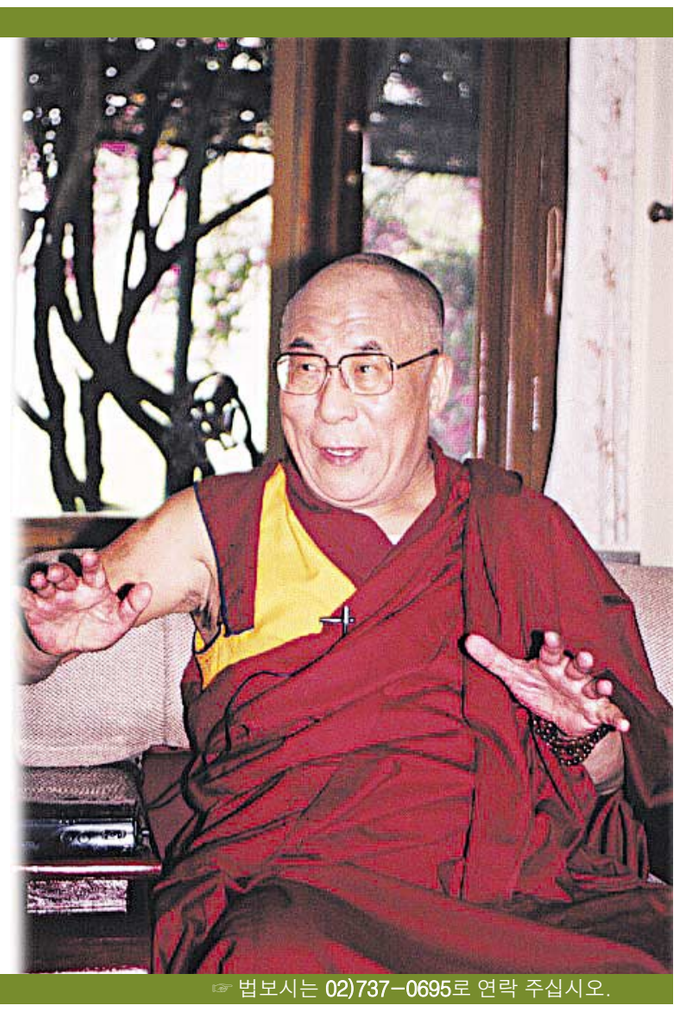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mind science

☞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